

## 백호탕으로 소양인의 소갈병을 치료한 경험

황성주\*

### 주제 : 소양인소갈병/사상의약료법 백호탕가미/치료응용

당뇨병은 일종의 상견적인 내분비대사가 문란하여 오는 대사성질환이다. 필자는 1993년부터 1994년 4월까지 백호탕 가감법으로 15례의 소양인소갈증(당뇨병)을 치료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았다. 아래에 치료 경험을 소개한다.

#### 1. 임상자료

15례중 남자11례 여자4례, 25세~30세 5례, 31세~40세 8례, 40세이상 2례, 병이 걸린 시간이 제일 짧은 사람은 2개월, 제일 긴 사람은 1년. 상소(上消)자 10례, 중소(中消)자 4례, 하소(下消)자 1례.

#### 2. 치료방법

처방 : 백호탕

약물 : 석고20g~50g, 지모8g~15g, 감초5g, 찹쌀20g.

가감 : (1)갈이다음(渴而多飲)자. 加. 천화분 15g~30g, 건지황10g~30g, 현삼15g20g.

(2)소곡선기(消谷善飢)자. 加. 구기자20g, 복분자 15g, 지골피20g.

(3)갈이뇨삭유고(渴而尿數有膏)자. 加. 산수유

15g, 백복령15g, 숙지황20g, 택사15g, 황벽5g.

#### 3. 치료결과

15례중 임상적으로 치료된 사람은 12례, 호전된 사람은 3례, 세가지 많은 증상이 제일 빨리 없어진 사람은 2일, 제일 늦게 없어진 사람은 11일, 혈당과 뇨당이 제일 빨리 없어진 사람은 10일, 제일 늦게 없어진 사람은 25일, 3례는 혈당과 뇨당이 호전은 있으나 정상이 못되었다.

#### 4. 병례소개

례 : 리XX, 30세, 여성, 가정주부 1994년 5월 6일에 초진(初診).

환자는 1994년 2월초 부터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이 잦고 많으며 식사는 일반적이다. 몸은 이전보다 여위였다. 머리는 앞이마가 좀 나온편이고 미목(眉目)은 비교적 준수하고 명랑하게 생기였고 몸은 상체는 실하나 하체는 허한 편이다. 음성도 좀 가늘고 맑지였다. 화험결과 혈당은 11.6mm/L, 뇨당은(+++), 진단은 소양인의 상소(당뇨)병.

처방 : 백호탕가미

약물 : 석고40g, 지모15g, 감초5g, 찹쌀20g, 천화분25g, 건지황25g, 현삼20g, 6첩.

용법 : 하루1첩, 2번 다려서 아침, 저녁에 구복.

\* 룡정시 로투구진 중심위생원 중의과

5월 12일 : 2첩을 2일간 구복한후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이 잦고 많은 증상이 기본상 없어지고 6첩을 다 쓴 후에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5월 27일 : 원래의 처방을 계속하여 15첩을 더 썼다. 오늘 화험결과 혈당은 5.6mm/L, 뇨당은 (-)으로서 림상적으로 완치되었다, 하여 환자에게 룩미 지황환을 3개월간 구복하게 하였다.

#### 5. 맺는말

취장은 하나의 외분비선으로서 중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내분비선이기도 하다. 내분비선 세포는 군데군데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란게르한씨섬이라고 한다. 란게르한씨섬은 가섬, 나섬, 다섬 세포로 구성되었다. 본병은 취장내에 란게르한씨섬의 기능적

또는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합수탄소(含水炭素) 신진대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기는 일종의 유전성적인 질병으로써 림상적으로는 과혈당에서 이어 당뇨, 다뇨, 번갈, 다음, 다식, 가려움증(피부 혹은 음부), 탈력(脫力), 몸이 여위는데 증상을 위주로 한다. 필자는 소양인의 소갈병을 중의학적으로 치료하여 보았으나 효과가 그리 이상적이 못되어 방법을 찾던중에 사상학적으로 치료하여 보려고 생각하고 소양인의 소갈은 상한론에서의 양명경의 백호탕증과 기본상에서 같다는 것을 알고 백호탕에 가감하여 치료하였더니 병례는 많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이상적이다, 하여 성숙하지 못한점이 많으나 발표하니 여러선배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994년 5월 30일